농촌마을서 크리스마스 축제 즐겨요

나주 노안면 '이슬촌' 마을 곳곳에 트리 장식

노안성당 100주년…19~23일 해피 성탄 축제

"이름처럼 예쁜 나주 '이슬촌'에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해요"

나주시 노안면 이슬촌 마을에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성탄을 주제로 한 '제 2회 해피 크리스마스 마을축제'가 열린다.

이슬촌은 나주평야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병풍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대표적 농촌체험 마을이다.

이슬촌은 팜 스테이 마을로 시작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돼 농촌체험학습장으로는 꽤나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농한기에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없어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자 주민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주민들은 마을 특성에 맞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농촌체험마을을 만들자는데 합의했다.

주민들은 마을에 있는 시지정 문화재 제 44호인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노안성당'에 착안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성당에서 함께 보냈던 주민들은 마을 입구와 골목 등 곳곳에 불빛 조명을 세우는 등 온 마을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단장했다.

특히 마을입구에서 성당에 이르는 200m의 돌담길에는 대나무를 이용해 아치를 만들어 은하수 트리와, 산타와 루돌프 형상의 트리도 설치했다.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깜짝 행사도 준비되고 있다. 관광객을 위한 사물놀이, 그룹 LOTUS 공연 등 매일 저녁 6시30분부터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또 1인당 3천원만 내면 천연비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또 마을에서 생산한 나물류와 현미, 검정쌀, 유정란 등 농산물 판매장터도 개설된다.

이슬촌 마을 사무장 이경화(39)씨는 "우리 마을이 농촌체험마을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면서 "누구나 참여해 크리스마스 행복을 나누는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1-335-0123)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함평에 세계 최대 황소 조형물 함평에 세계 최대 크기인 길이 10m, 높이 6.5m, 폭 5m의 황소 조형물이 세워진다. 함평군은 2009년 기축년 소의 해와 함평천지 한우특구를 기념하고 군의 대표적 특산품인 함평천지 한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함평읍 엑스포공원 입구에 대형 한우 조형물을 오는 30일 준공할 예정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해남 강절·장흥 기산 행안부 콘테스트 마을 가꾸기 대상

해남군 강절마을과 장흥 기산마을이 행정안전부의 '2008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콘테스트'의 대상 수상 마을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46개 기초자치단체와 1천73개 마을이 참여한 이번 콘테스트에서 이들 마을외에 경기 안산시 석수골마을 등 43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강절마을은 '찾아오는 마을, 살고 싶은 행복한 마을'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전설로 구전돼 오는 바위, 골샘, 효열비, 대동계원본, 친환경적인 돌담길 쌓기 등 마을 곳곳에 널려 있는 자원(보물)을 정비해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전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 기산마을은 조선 중기에 명성이 높은 문인을 한꺼번에 여덟 명이나 배출한 '팔문장 전통문화마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1억2천500만원 중 마을자체에서 기금 2천500만원을 마련해 관서별곡 시비건립(8개소), 우물정비(2개소), 소공원조성, 산책로를 조성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영암·신안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3년간 국비 50억 등 100억 투입 관광·수출농업 육성

영암군과 신안군이 '정부 지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유치해 앞으로 3년간 각각 100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영암군은 정부지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대상 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2011까지 3년간 각 100억원(국비 50·지방비 40·자부담 10)의 사업비를 받아 농업환경개선 등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신안·영암군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며 이를 토대로 관광농업, 수출농업의 거점단지로 육성해 한국형 친환경농업 모델단지로 개발하게 된다.

영암군은 덕진·신북·도포면 등 3개 면에 2천여ha, 신안군은 지도읍·증도면 일대 1천여ha에 대단위 농업단지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과 축산 순환자원화센터, 산지유통시설, 교육·관광기반시설 등을 설치한다.

김문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전국 9곳 중 전남이 2곳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아동범죄 예방 CCTV 설치

화순군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 화순군은 최근 1억원을 들여 어린이 공원과 초등학교 정문 등 9개소에 CCTV를 설치했다.

화순군은 화순경찰서에서 CCTV 설치를 협조 요청함에 따라 추경에 소요 예산을 확보해 최근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혁신학습동아리 운영 창의성·신뢰성 '쑥쑥'

완도교육청 연구과제 발표대회

완도교육청(교육장 곽영체)이 혁신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창의적 사고확산과 혁신마인드를 제고하고 있다.

완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혁신학습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대회는 5개 분임별 연구 성과물을 대상으로 창의성·효과성·신뢰성·파급성·발표내용 등을 종합해 2단계로 심사했다.

또 학교급별·직렬별로 7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완도교육청은 이번 발표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작 2편을 각급 학교에 확산시켜 혁신활동을 가속시킬 방침이다.

곽영체 교육장은 "구성원들의 생각 전환이 곧 혁신"이라며 "일선학교에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 적절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친환경농업 기틀 다지고 투자유치 성과

취임 1주년 맞은 김충식 해남군수

김충식 해남군수가 오는 2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1년 전만해도 해남군정은 사실상 '올 스톱' 상태였다. 민선 4기 시작과 동시에 박희현 당시 해남군수가 인사청탁과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1년 6개월여의 기나 긴 행정 공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해남군 기획예산실장 출신인 김충식 군수는 '변화와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해 지난 1년간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갔고, 성공적으로 군정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얻어냈다.

김 군수는 무엇보다 해남지역민의 최대 수입원인 농어업 분야에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취임 이후 '친환경 웰빙 농업도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 군수는 올해 총예산 가운데 농어업에 투자한 금액이 1천96억 원(29.4%)에 이를 만큼 '친환경 농업이 곧 해남'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친환경 농업단지도 지난해에 비해 166% 늘어난 7천732ha를 조성했고, 친환경 인증면적도 9천36ha로 전국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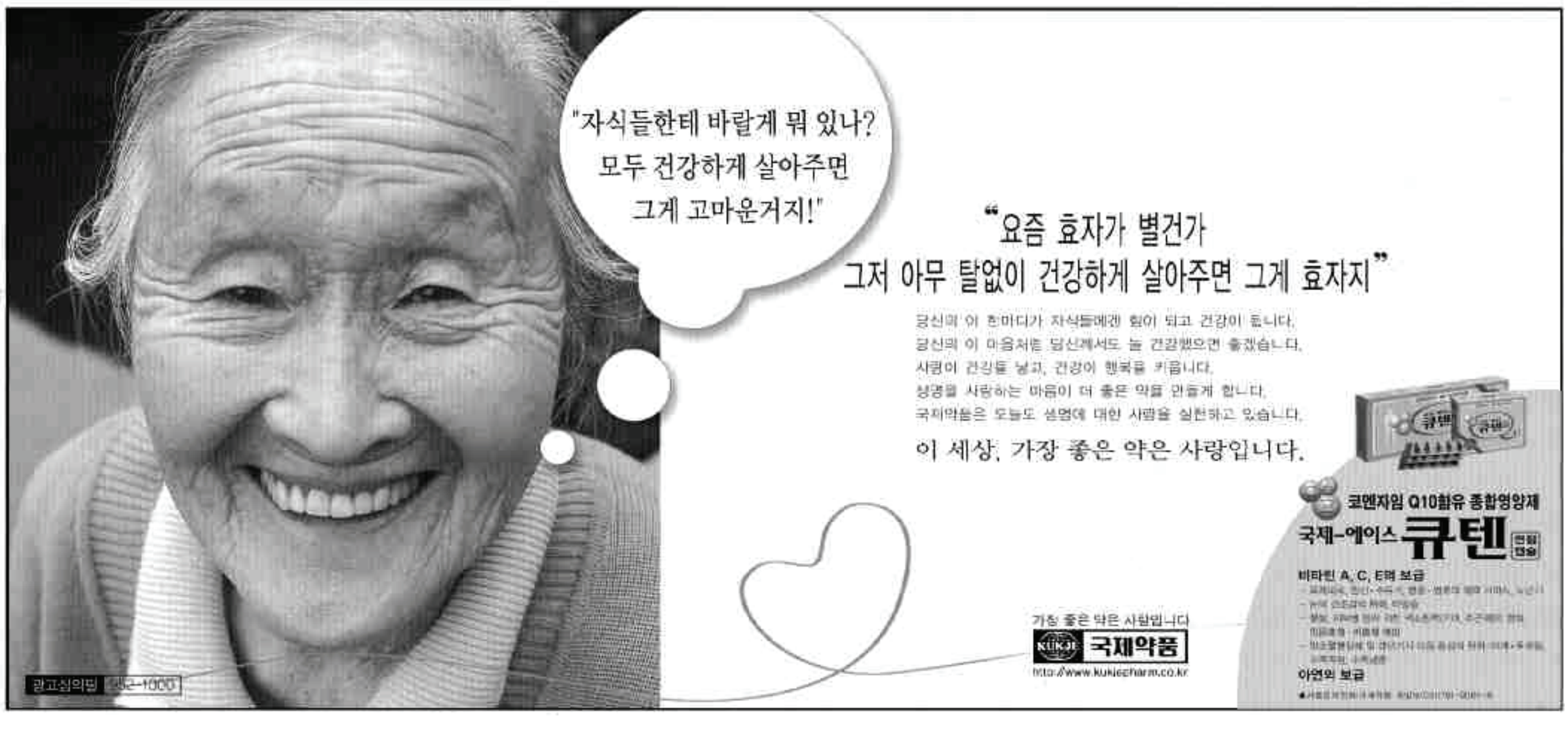
전국 최대 친환경 인증 동계전훈 4천여명 유치

김 군수는 또 해남만의 독자적인 유통채널인 '블루오션 프로젝트' 마케팅을 통해 1년여 만에 고객 2만 명을 확보했고, '해남 미소'를 통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3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겨울 배추와 황토 고구마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국내시장을 넘어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등 해외 수출길에도 올랐다.

김 군수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해 4개 업체로부터 2천550억 원을 유치하고 일자리 1천100개를 창출하는 데도 성공했다.

투자유치 1호 기업인 대한조선은 최근 4번째 선박을 진수하면서 해남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또 전국규모 대회 6개, 동계전지훈련 선수단 66개 팀 4천여 명을 유치하면서 해남을 전국 스포츠 메카로 급부상 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최우수기관, 자활분야 우수기관, 구강 보건사업 우수군, 국가 암 관리 사업평가 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확실한 족적을 남겼다.

김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군정을 운영하면서 해남의 밝은 희망과 행복한 미래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30~40년 멀리 내다보고 신 해남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